

김도현 대표님을 위한

# 가지급금 정리 전략

인정이자 · 상여처분 · 소명체계 · 세후현금흐름 최적화

2026. 02

법인명	(주)에이원테크
대표	김도현 (47세)
업종	전자부품 유통·가공
매출	약 80억
가지급금	6.5억
목표	24개월 내 4.0억+ 정리

# Today's 결정사항

[가지급금] : 정리 방식을 선택하는 자리입니다

오늘은 '할지 말지'가 아니라, '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' A/B 중 선택하는 시간입니다.

## A안 – 효과 우선

- 24개월 내 4.0억 이상 집중 정리
- 배당+급여 조합으로 빠른 회수
- 법인 보험을 활용한 리스크 재원 확보

## B안 – 부담 우선

- 36개월 단계적 정리 (분기별 실행)
- 대표 실효세율 급등 방지 우선
- 최소 비용으로 소명체계 우선 구축

"대표님, 가지급금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고 계시죠? 오늘은 '얼마나 빠르게, 어떤 구조로' 하느냐를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."

▶ 먼저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.

# 현재진단

[숫자형] : 가지급금 6.5억, 매년 약 3,250만원의 보이지 않는 비용이 발생 중입니다

가지급금 장기 누적 → 인정이자 부담 + 상여처분 리스크 + 금융기관 신용평가 악화가 동시에 진행 중

가지급금 잔액

**6.5억**

장기 누적 15년

연간 인정이자

**~3,250만**

법인세법 제52조 기준

상여처분 리스크

**높음**

소명 미비 구간 존재

미처분이익잉여금

**14억**

배당 재원 활용 가능

- 가지급금 발생 원인: 개인카드·경비 혼재, 임원 대여금 누적, 접대비 증빙 미흡
- 대출(시설 12억+운전 10억) 유지 중 → 재무비율·신용평가에 가지급금이 부정적 영향
- 경영인 보험·키맨 보험 미가입 → 대표 유고 시 법인·채권자 대응 재원 부재

"대표님, 매년 약 3,250만원이 보이지 않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, 확인이 되셨을 텐데요. 이 비용은 정리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줄어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."

▶ 이 숫자들의 배경이 되는 상세 데이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.

# 리스크 맵

[대비형] : 4가지 리스크가 연쇄적으로 법인과 대표 개인에 영향을 줍니다

세무·법률·승계·대표 리스크가 가지급금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

## 세무 리스크

가지급금 인정이자  
상여처분 → 소득세·4대보험↑  
소명자료 미비 → 세무조사

## 승계 리스크

지분 70% 집중(대표)  
상속재원 미확보  
경영권 분쟁 대비 부재

## 법률 리스크

정관 미정비(5년)  
배당·상여 부인 가능성  
주주(투자자 20%) 이해 조율

가지급금  
6.5억

## 대표 리스크

경영인보험 없음  
유고시 채권자 대응 재원 없음  
보증부담(대출 22억)

"이 4가지 리스크가 가지급금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하나를 정리하면 나머지도 함께 개선되는 구조입니다."

▶ 각 리스크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인하겠습니다.

# 현재상황

[행동형] : 가지급금 원인을 분해하고 회수 가능 구간을 확인합니다

가지급금 6.5억의 원인을 분해하면, 정리 방법과 속도가 달라집니다.

구분	추정 금액	소명 상태	상여처분 위험	정리 방법
개인카드·경비 혼재	~2.5억	일부 미흡	높음	증빙 보완 + 일부 상여처분
임원 대여금 누적	~2.5억	계약서 미비	중간	대여금 계약 정비 + 분할상환
접대비 증빙 미흡	~1.5억	미흡	높음	소명자료 복원 + 단계적 회수
합계	6.5억	—	—	복합 접근 필요

- 법인 재무: 자본금 3억 / 이익잉여금 18억 / 부채 22억 / 월 현금흐름 여유 약 800만원
- 주주구성: 대표 70% · 배우자 10% · 초기투자자 20% → 배당 시 주주 합의 필요
- 정관: 임원퇴직금 배수 3배, 최근 5년 미정비 → 현행 세법 한도 검토 필요

"대표님, 가지급금 6.5억이 한 덩어리가 아니라 3가지 원인으로 나뉜다는 점, 확인이 되시죠? 원인별로 정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분류가 중요합니다."

▶ 그럼 이 중 어느 것부터 정리해야 효과가 큰지, 우선순위를 정해 보겠습니다.

# 실행우선순위

[질문형] : 가지급금 정리, 어디부터 시작하면 가장 안전할까요?

소명체계 구축 → 인정이자 축소 → 회수 시나리오 실행 → 대표 리스크 방어 순서로 진행합니다.

1	소명체계 구축	증빙·규정·계약서 정비 세무조사 대응력 강화	즉시
2	인정이자 축소	가지급금 일부 회수 시작 시가이자 부담 감소	1~3개월
3	회수 시나리오 실행	배당·급여·상환 조합 세후 최소화 구조 설계	3~12개월
4	대표 리스크 방어	경영인보험·키맨 보험 유고시 법인 보호 장치	병행(선택)

"대표님, 가장 시급한 것은 소명체계를 먼저 갖추는 것이라고 보시는 게 맞으시죠? 방어가 먼저, 공격은 그 다음입니다."

▶ 그럼 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인하겠습니다.

# 제도활용(기준)

[은유형]: 가지급금 정리는 '지로 제거'와 같습니다 – 제도라는 도구가 있습니다

원칙 → 예외 → 주의사항 구조로 제도적 근거를 정리합니다.

## 원칙

- ① 인정이자: 시가이자율 적용, 부당행위계산 부인  
「법인세법 제52조, 시행령 제89조」
- ② 상여처분: 소명 실패 시 대표 근로소득 가산  
「소득세법 제20조」
- ③ 손금산입: 업무관련성 입증 시 경비 인정  
「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」

## 예외·활용

- ① 배당소득: 법인영여금 배당 시 15.4% 원천징수  
「소득세법 제17조, 제127조」
- ② 퇴직금 정관 활용: 배수 한도 내 퇴직금 설계  
「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」
- ③ 대여금 계약 정비: 이자율·상환조건 명시 시  
상여처분 회피 근거 확보

## 주의사항

- ① 배당 시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→ 종합과세  
「소득세법 제14조」
- ②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 시 → 근로소득 과세
- ③ 최근 개정 여부 확인 필요  
(현행 기준, 세무 전문가 사전 검토 필수)

"대표님,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이미 있다는 점, 확인이 되셨죠? 이 도구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핵심입니다."

▶ 이 제도를 적용했을 때 현재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하겠습니다.

# 부족한 부분

[숫자형] : 목표 4.0억 회수까지, 지금 준비된 재원과 격차를 확인합니다

## 24개월 목표 회수액 4.0억 vs 현재 가용 재원 → 격차 분석

회수 방법	24개월 가용액(세후)	세부 조건	상태
배당 활용	~1.0억	주주 합의 필요, 종합과세 주의	조율 필요
급여 조정(점진적)	~0.8억	실효세율·4대보험 상승분 고려	가능
대여금 분할상환	~0.5억	계약서 정비 후 월 상환 구조	정비 후 가능
소명 성공(경비 인정)	~0.5억	증빙 복원 가능 구간만 해당	일부 가능
합계 (보수적 추정)	~2.8억	목표 4.0억 대비	격차 ~1.2억

- 격차 ~1.2억: 퇴직금 정비(정관 활용), 경영인보험 환급금 활용, 추가 배당 등으로 보완 가능
- 소명체계 미구축 시: 상여처분 구간 확대 → 대표 소득세+4대보험 부담 급증 가능
- 법인 보험(키맨): 유고 시 채권자 대응+가지급금 일시 상계 재원으로 활용 가능

"대표님, 현재 준비된 재원만으로는 목표에 약 1.2 억 부족합니다. 이 격차를 어떻게 채울지가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."

▶ 이 격차를 방지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.

# 기회비용

[대비형] : 지금 시작 vs 2년 미룸 – 같은 가지급금, 다른 비용

가지급금 정리를 미루는 매 1년마다 약 3,250만원+ $\alpha$ 의 추가 비용이 누적됩니다.



## ① 공백기간 리스크

소명체계 미비 → 세무조사 시  
즉시 대응 불가

## ② 비용 상승

인정이자 매년 ~3,250만 원  
상여처분 시 소득세·4대보험 급증

## ③ 기회비용

같은 6.5억 정리에 드는 총비용이  
2년 후엔 약 6,500만 원 이상 추가

\* 차트 수치는 시가이자율 4.6% (보수적 가정), 정리 진행 중 가지급금 평균잔액 기준 시뮬레이션이며, 실제 금액은 시장 상황 세법 변경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확정 수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

(산출 근거: 즉시 시작 시 1년차 평균잔액 약 3.5억 가정, 미정리 시 6.5억 전액 유지 가정)

"대표님,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커진다는 점, 확인이 되셨죠?"

▶ 해결 방법은 이미 있습니다. 설계 원칙을 확인하겠습니다.

# 플래닝

[행동형] : 3가지 원칙으로 가지급금 정리 구조를 설계합니다

'해지·일시정리'가 아니라, 세후현금흐름 최적화 + 법인리스크 방어 + 소명체계의 3축 설계

## 세후현금흐름 최적화

배당·급여·상환 비율 조합  
실효세율 시뮬레이션  
4대보험 영향 최소화  
「소득세법 제17조, 제20조」

## 법인 리스크 방어

경영인보험(키맨) 설계  
대표 유고 시 채권자 대응  
가지급금 일시상계 재원  
유동성·리스크전가 구조

## 소명체계 구축

증빙·규정·계약서 정비  
업무관련성 소명 프로세스  
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 
정기 점검(세무·정관·승계)

보험·연금이 맡는 역할: 유동성(유고 시 즉시 현금) + 리스크 전가(큰 손실을 보험료로 예산화) + 실행 지속성(계약 구조로 목표 고정)

고객의 투자 성향과 재무 상태에 따라 적합한 상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"대표님, 해지나 일시정리가 아니라 '구조를 바꾸는 것'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3축이 동시에 움직여야 효과가 납니다."

▶ 구체적인 A안과 B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.

# 법인·개인 분리 설계

[대비형] : 법인과 대표 개인, 각각의 역할을 분리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

법인: 리스크 방어 + 가지급금 상계 재원 / 개인: 세후현금흐름 + 은퇴보완

## 법인 설계 (월 ~80만원 이내)

- 경영인정기보험(키맨): 대표 유고 시 법인 보호  
→ 사망보험금 법인 수취 → 가지급금 상계 재원
-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기준 손금산입 검토  
→ 퇴직금 정비: 정관 배수 재검토(현행 3배)
-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한도 확인
- 내부통제: 가지급금 발생 방지 시스템 구축

## 개인 설계 (월 ~50만원, 선택)

- IRP 신규 개설 + 연금저축 재개  
→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세액공제 활용  
→ 연간 최대 148.5만원 절세 효과
- 건강보험 보완: 3대진단 보강(현재 암 3천만 수준)  
→ 고지혈증 소견 고려, 가입 시기 중요
- 국민연금 예상 120만 → 부족분 개인연금으로 보완

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"법인과 개인을 분리하면, 각각의 역할이 명확해집니다. 이제 구체적인 A/B 안을 비교해 보시겠습니다."

▶ A안(효과 우선)과 B안(부담 우선)을 비교합니다.

# 솔루션 A/B

[숫자형] : 24개월 집중 정리 vs 36개월 단계적 정리, 세후 비교

두 안 모두 소명체계 구축은 공통. 차이는 '속도'와 '부담' 분산입니다.

항목	A안: 효과 우선 (24개월)	B안: 부담 우선 (36개월)
목표 회수액	4.5억 (전체 69%)	4.0억 (전체 62%)
월 법인 부담(보험 포함)	배당+급여 조정 + 보험 80만	급여 소폭 조정 + 보험 60만
월 개인 부담(선택)	IRP+연금저축 50만	연금저축 재개 30만
연간 절세 효과(예상)	~450만원 (보험손금+세액공제)	~280만원
인정이자 절감(24개월)	<b>~4,500만원 절감</b>	~2,800만원 절감
대표 실효세율 영향	일시적 상승 가능 → 점진 하락	영향 최소화
리스크 방어(키맨보험)	사망 5억 + 법인 보호	사망 3억 + 법인 보호
보험·연금 역할	<b>유동성 + 리스크전가</b>	<b>리스크전가 + 실행지속성</b>

※ 상기 수치는 보수적 가정(시가이자율 4.6%, 연복리 3%) 기반 시뮬레이션이며, 실제 수령액은 시장 상황·세법 변경·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확정 수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

※ 중도 해지 시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(해지환급금 예시는 상품설명서 참조).

▲ 대표 개인의 기준 부채상환(주택대출·신용대출) 부담이 있으므로, 가계 현금흐름을 점검 후 개인 부담 금액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.

"대표님, A안은 빠르게 정리되지만 일시적 부담이 있고, B안은 부담은 적지만 시간이 더 걸립니다. 어느 쪽이 더 마음이 놓이시나요?"

▶ 각 구성요소가 부족분을 어떻게 채우는지 구체적으로 연결하겠습니다.

# 솔루션 2

[행동형] : 부족분을 하나씩 채우는 구체적인 매칭 구조입니다

각 부족분에 대응하는 해결요소와 적용수단을 3열로 매칭합니다.

부족분	해결요소	적용수단
가지급금 회수 재원 부족 (격차 ~1.2억)	퇴직금 정비 + 추가 배당 + 경영인보험 환급금 활용	정관 정비 + 배당정책 합의 + 경영인정기보험(법인)
소명체계 미비 (세무조사 대응력 취약)	증빙 복원 + 내부규정 수립 + 대여금 계약서 정비	세무사·회계사 협업 + 내부통제 프로세스 구축
대표 유고 시 법인 보호 부재	유고 시 즉시 현금 확보 (유동성 + 리스크 전가)	경영인정기보험(키맨) 법인 수익자 설계
대표 은퇴 현금흐름 부족 (국민연금 120만/월만)	연금 보완 + 세액공제 활용 (실행 지속성 확보)	IRP + 연금저축 재개 (개인, 선택)
건강 리스크 보장 공백 (3대진단 보강 필요)	진단자금 확보 (치료비·소득공백 방어)	건강보험 리모델링 (개인, 선택 옵션)

고객의 투자 성향과 재무 상태에 따라 적합한 상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"대표님, 이렇게 부족분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수단이 정해지면, 실행이 훨씬 명확해집니다. A안과 B안 중 어떤 속도로 채워나갈지만 정하면 됩니다."

▶ 마지막으로, 다음 단계를 확인하겠습니다.

# Next

[질문형]: 오늘 정리한 내용이 만족스러우셨다면,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편하실까요?

이 체크는 오늘 검토한 내용을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체크입니다.

A안 진행(효과 우선) – 24개월 집중 정리, 월 법인 80만 + 개인 50만

B안 진행(부담 우선) – 36개월 단계적 정리, 월 법인 60만 + 개인 30만

보완 후 재결정 – 보완 항목: \_\_\_\_\_ / 재결정 날짜: \_\_\_\_\_

## 다음 단계

1단계: 세무사·회계사 합동 미팅 (소명체계·정관 정비 착수) – 2주 내

2단계: 가지급금 회수 시나리오 확정 (배당·급여·상환 비율) – 1개월 내

3단계: 경영인보험 설계 확정 및 계약 (법인 리스크 방어) – 1개월 내

4단계: 분기별 진행 점검 (가지급금 잔액·인정이자 변동·소명진행률·보험유지 상태 확인) + 세무·정관·승계 정기 리뷰 – 매 분기

본 자료는 상담 보조 자료이며,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"대표님, 오늘 정리한 내용이 만족스러우셨다면,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편하실까요?" [잠시 침묵]

## 유사 사례 결정 흐름

결정 시점: 첫 미팅 후 1주 내

선택안: A안(효과 우선) 선택

다음 행동: 세무사 미팅 → 2주 내 소명체계 착수

## 핵심 요약

- 핵심 니즈: 가지급금 6.5억 세후 최소화 정리 + 세무조사 대응력 확보
- 가장 큰 부족분: 회수 재원 격차 ~1.2억 + 소명체계 전무
- 오늘 결론 질문: '24개월 집중(A) vs 36개월 단계(B), 어느 속도가 편하십니까?'

## 예상 반대 3가지 + 즉답

예상 반대	즉답
"배당하면 주주(투자자)가 반대할 텐데"	투자자 지분 20%에 대한 배당도 함께 설계하면 합의 가능. 가지급금 방치가 기업가치를 더 훼손한다는 점을 수치로 공유하는 것이 핵심.
"보험까지 추가하면 부담이 크다"	경영인보험은 법인 부담이고, 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 가능성은 세무사와 확인. 유고 시 가지급금 일시 상계 재원이므로 '비용'이 아닌 '방어 장치'.
"세무조사가 올지도 모르는데 미리 할 필요 있나"	소명체계 구축은 세무조사 유무와 무관하게 대출 연장·외부감사·금융기관 실사에서 유리. 사후 정비는 비용이 3~5배.

## A/B 비교 요약

항목	A안	B안
월 총 부담	~130만(법인80+개인50)	~90만(법인60+개인30)
24개월 누적 절감	인정이자 ~4,500만+절세 ~900만	인정이자 ~2,800만+절세 ~560만
한 줄 결론	빠른 정리, 일시 부담 감수	느린 정리, 부담 최소화

본 PT는 코어 12장 + 확장 3장 = 총 15장 + 컨설턴트 참고 1장으로 구성됨  
(확장 사유: A1-리스크 축 4개, B2-법인+개인 동시 설계, 전문가형 고객 시나리오별 비교 선호)